

1918년 제주 범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한 금 순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1948년 제주 범정사 항일운동의 목적
- III. 일제에 의한 범정사 항일운동의 왜곡
- IV. 제주 범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 V. 맺는 말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제주불교사연구회 연구원.

【 국문요약 】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내세워 1918년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의 지휘 아래 지역 주민 700여명이 함께 일으킨 항일독립운동이다. 그간 일제의 의도적인 왜곡에 의해 보천교의 난으로 폄하되었던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을 기치로 내건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거사로부터 시일이 멀어질수록 참여주민의 숫자를 700명에서 3백여 명으로 축소시켰고, 불교도들이 참여하였다는 처음의 기록은 점차 사교도들의 난리로 기록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보천교의 난으로 왜곡된 것은 바로 일제가 항일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폄하한 것이었다. 이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시각은 보천교의 난으로 고정되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를 모두 이러한 시각과 연관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존 연구의 법정사 항일운동의 날짜와 주도 세력에 대한 오해 등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에 일어났으며, 700여명의 주민이 동참하였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사건부』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은 85%가 법정사 인근 마을인 좌면 출신 주민들이었다. 주도세력들은 법정사에 모이기 이전에 이미 승려로 출가한 사람들이 주가 되었으며, 이들이 법정사에 모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법정사에 모인 신도들에게 거사의 뜻을 알리고 주변에 동참을 권유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참여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참여한 거사가 일본인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700여 주민들이 참여한 항일운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I. 들어가는 말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도순리 법정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제주도에선 일본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승려 김연일·강창규·방동화 등이 주도하였다. 도순리 법정사 인근 지역 주민 70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주도세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항일 의지를 결집해 낸 결과였다.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 당국에 의해 사교도들의 민중 선동 사건으로 왜곡된 이후 '보천교의 난'으로 취급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오랫동안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주된 시각으로 자리 잡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자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기존 시각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발굴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게 밝혀지는 사항을 제시하려고 한다. 1994년에 『형사사건부』와 『수형인명부』가 발굴되면서 법정사 항일운동은 비로소 항일운동으로 성격이 바로 잡히었고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정구용 판결문』의 발굴로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모가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제주불교사연구회는 『김연일 가출옥 증표』와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등의 문서와 유족들의 구술 자료 및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경전류 등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필자는 『대각사상』 제9집에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¹⁾

1)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대각사상』 제9집, (대각사

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동안 관련 자료의 빈약함과 일제의 왜곡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기존 시각을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해보려고 한다.

글의 순서는 우선 일제시대 자료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보천교의 난'이라고 폄하되었던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는 최우선의 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천교의 난으로 그 성격이 왜곡되게 된 시점을 찾아 밝히도록 하겠으며, 보천교의 난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생겨났던 기존 연구의 흐름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

1 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항일운동이라는 측면은 외면된 채 종교적 불만으로 일으킨 소요라는 일제의 의도에 의해 '보천교의 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이에 우선 본고는 거사의 목적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다. 거사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는 『정구용 판결문』,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 등이 있다. 이들 자

상연구원, 2006).

료는 모두 일제 당국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들이다.

1923년 자료인 『정구용 판결문』은 「이유」에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조선을 잘 통치해서 원래의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기로 했음으로”, “지금부터 조선정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선 그 수단으로 내지인(필자주: 일본인) 관리를 이 섬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심 공판 경위서」에는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시오.”, “제주도에 있는 내지인 전부를 몰아내고, 이어서 육지에 나가 불교를 포교하고 싶은 바...”라는 등으로 거사를 일으키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유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중략-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를 도외로 쫓아냄으로서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법정사에 모여 든 많은 신도들에게 그 뜻을 전하여 가담을 강요하고 있었던 바.²⁾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나는 대정 7년 음력 2월경부터 불교도가 되었는데, 법정사에 3년 이전부터 김연일이라는 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해 음력 8월 15일 법정사에 참배하려고 남녀 30명이 모여 있었다. 김연일은 모든 사람을 향해 이번에 불무황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 조선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또한 조선을 잘 통치해서 원래의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기로 했음으로 -중략- 1918년 음력 9월 1일 법정사에 가니 남자 30명이 모여 있었는데, 김연일은 모두를 향해 자신은 불무황제이다. 지금부터 조선정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선 그 수단

2) 「이유」 『정구용 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으로 내지인 관리를 이 섬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³⁾

원심 공판 경위서

… 절을 출발할 때 김연일은 이번에 도내에서 일본인을 쫓아내 원래의 한 국시대로 회복할 것이니 조력하시오라고 말하였다.⁴⁾

원심 공판 경위서 중 피고 박주석의 공술

… 김연일은 나를 대하여, 제주도에 있는 내지인 전부를 몰아내고, 이어서 육지에 나가 불교를 포교하고 싶은바, 청하건데 그 수행(遂行)에 조력해달 라고 말했다.⁵⁾

이처럼 정구용·양남구·고용석·박주석의 진술에 공통적으로 국권회 복이라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강창규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한일병합의 이치를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 범죄 이유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의 「이유」에도 “김연일이 일본인을 쫓아내고 선정을 펴기 위해 거사를 일으켰다.”고 표현하고 있다.

범죄의 원인

교육과 학식 소양이 없기 때문에 병합의 이치를 납득하지 못하고, 불량한 무리에게 선동되어, 사려 없이 앞뒤를 가리지 못한 행동으로 치달아 본 범

3) 「양남구에 대한 신문 조서」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4) 「원심 공판 경위서」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5) 「원심 공판 시말서 중 피고 박주석의 공술」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⁶⁾

이유

‘김연일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선전토에 불교를 폐트리고, 선정을 펴기 위해 의군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내지인 관리들을 섬밖으로 쫓아내려 한다.’⁷⁾

또한 일제 고등 경찰의 극비문서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서도 “이전부터 계속하여 반일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다.”고 하고 목적은 ‘국권회복’이었다고 하였다.

수괴 김연일은 경북 영일군 출신이면서, 4년 전 승려로서 제주도 좌면 범정사에 거주하며, 언제나 교도에 대하여 반일 사상을 계속 고취시키고자 했다. -중략- 가까운 장래에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관련하여,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지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도외로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⁸⁾

이 자료들 외에 1923년 『매일신보』 2월 20일자 기사도 독립을 위한 것임을 보도하였다.

대정 8년 3월 6일 밤에 좌면 도순리에 있는 승려 수명과 부근의 주민 수십명과 단결한 후 각리 구장에게 편지로 이번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출세하여 조선 백성을 구할 터인 즉 동월 3일 오전 4시에 리 구민을 인솔하여 좌면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러한 후 우리들은 먼저 관청으로 가서 관리를 체포한

6)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7)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8) 경상북도 경찰부 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일제 경찰 극비본 영인판, 1934).

후 독립을 계획할 터인데.)⁹⁾

여기 인용한 문서들은 모두 일제 당국이 기록해 낸 것들이다. 이렇게 일제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도내의 일본인 관리와 상인들을 몰아내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을 선언하였음을 살펴보았다.

III. 일제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왜곡

그러나 일제당국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발발한 해로부터 멀어져갈수록 점차 독립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사교도들의 불만의 표시였다고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였다. 자료들을 토대로 시대별로 달라지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체적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 『정구용 판결문』,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와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와 『매일신보』의 기사 3편을 연대순으로 비교 검토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시각이 의도적으로 바뀌고 있음이 드러난다. 우선 참여자의 숫자가 달라지며 다음은 거사 목적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9) 「자칭 황제 강창규」, 『매일신보』(1923. 2. 20.).

1. 참여자 수의 왜곡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자료들은 우선 참여자의 숫자를 해가 갈수록 줄여 기록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1918년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은 1920년 4월 12일 『매일신보』에 처음 기사화 되었다. 이 기사는 제주에서 김연일이 '7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당시 『매일신보』는 그간 제주도에 대한 기사를 가끔 싣고 있었으나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여가 지나도록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주도자 김연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간략하게 알렸다. 이 기사는 김연일이 3월 중에 체포되었다고 하였는데 『형사사건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김연일은 공판일인 1919년 2월 4일까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궤석재판을 받았으나, 1919년 4월 5일 형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 3월 중에 체포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에서 불무황제라 하고 부하 7백 명을 거느리고 소요한 김련일(51)은 목포지청에서 궤석 재판을 받고 징역 십년 죄로 종적이 없었던 바 3월 중에 제주도로 돌아간 것을 체포하였다는데 이번에 목포분감에서 복죄하였다더라. (광주)¹⁰⁾

이 기사만으로도 김연일은 700명과 함께 거사를 일으켰으며 그 죄가 징역 십년에 해당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1운동의 결과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정도로 규모가 컸던 항일운동이었음에도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한 점은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의 독립운동 기운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10) 「불무황제 체포」, 『매일신보』(1920. 4. 12.).

다. 또한 김연일·강창규를 비롯한 거사의 주요 인물이 검거되지 않았는데도 사건을 급히 종결시킨 점도 언론 보도 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¹⁾

그러나 이 기사로부터 3년이 흐른 뒤 즉 거사로부터 5년 뒤, 1923년 『매일신보』 2월 20일자에는 강창규 체포소식을 기사화하면서 참여자들을 ‘400명’의 대폭동단이라고 갑자기 줄여 표현하였다.

제주도 중면 사계리 강창규(41)라는 자는 자칭 불무황제 이백(二百) 대장 겸 치민(治民) 황제 김연일이라는 자와 공모하고 선위선봉대장(先衛先鋒大將)이라고 한 후 대정 8년 3월 6일 밤에 좌면 도순리에 있는 승려 수명과 부근의 주민 수십 명과 단결한 후 각리 구장에게 편지로 이번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출세하여 조선 백성을 구할 터인 즉 동월 3일 오전 4시에 리 구민을 인솔하여 좌면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러한 후 우리들은 먼저 관청으로 가서 관리를 체포한 후 독립을 계획할 터인데 만일 이 명령에 쫓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법에 처하겠다고는 격문을 보낸 후 그들의 일단은 총과 몽둥이를 휴대하고 각 곳으로 돌아다니며 장정군을 뽑아 4백 명의 대폭동단을 조직하여 내지인의 집과 동리 주재소에 침입하여 기구를 파괴하고 공문서와 건축물을 살라버리었는데 범인 김연일은 즉시 체포되었으나 강창규는 어디로 도망하였는바 4년 만에 작년 12월 28일 제주도 우면 상호리 화전동에 잠복한 것을 동리 주재소의 요코야마(橫山)무장과 김순사가 탐지한 바가 이루어져 즉시 체포되었다더라.¹²⁾

11) 정공식은 법정사 항일운동을 법적으로 고찰하여 높은 양형과 재판의 빠른 처리 등으로 보아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국적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 보았다. 정공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10~12쪽.

12) 「자칭 황제 강창규」 『매일신보』(1923. 2. 20.).

7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들면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1920년 기사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있었고 더 이상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국적 파장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서 비교적 상세히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오류가 많다. 기사는 대정 8년 즉 1919년 3월 6일 거사를 시행한 것으로 하고 있고, 다시 동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 집합을 얘기 하는 등 날짜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이 아니라 1918년에 있었으며 3월 6일이 아니라 10월 7이었다. 또한 김연일이 즉시 체포되었다고 하였으나 김연일은 1년 6개월 뒤에 체포되었다. 게다가 동리 주재소를 방화한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동리(同里)라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위 기사는 기사 전문인데 여기에 표현된 마을은 사계리 도순리 하원리 상효리인데, 불 탄 주재소는 중문리 주재소이므로 동리라고 표현한 것에 걸맞지 않다. 이해보아 이 기사는 거사 후 5년여 뒤에 쓴 기사라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쓴 기사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시각이 완전히 정립되고 사건처리가 다 끝난 후의 시각으로 쓴 기사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1923년 6월 29일 자료인 『정구용 판결문』에서는 ‘300~400명’이 참여하였다고 바뀌었다.

이유

전라남도 제주도 도순리 한라산 서남록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전부터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 음력 6, 7월경 이래 여러 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생략- 동(同)세력이 점점 증대되어 약 300여명이 되었다.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선봉대인 강창규는 가담자들에게 명하여 속칭 도순리 대친이라 부르는 천 으로부터 서쪽도로를 따라 세워져 있는 전주 2개를 절단했다. 그로부터 더 나아가 하원리에 이르렀을 때는 총 세력이 삼, 사 백 명이 되었는데.

정구용에 대한 판결 이유에는 300여명으로 표현하였고, 정구용 판결을 위해 첨부한 보조 자료인 양남구를 신문한 조서에는 3, 400명으로 표현 하였다.

1934년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는 ‘약 400명’으로 표현되었 다.

제주도 소요 사건

수괴 김연일은 경북 영일군 출신이면서, 4년 전 승려로서 제주도 좌면 법정 사에 거주하며, 언제나 교도에 대하여 반일 사상을 계속 고취시키고자 했다. 대정 7년 9월 19일 구 우란분(舊 盂蘭盆) 때 법정사에 모이게 한 교도 30명에 대해, 왜노는 우리 조신을 병탄할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한다. 가까운 장래에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관련하여,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지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도외로 내쫓아야한다고 말하고, ... 2일 간에 걸쳐 리민 약 400명을 억지로 징집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원인은 선도 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중함으로부터 김연일은 사전에 친교가 있는 동 지(同地) 선도교 수령 박명수와 미리 짜고 일을 꾸미기에 이르렀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도 눈에 띄는 오류가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2일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다. 1918년 10월 7일 새벽 법 정사를 내려와 불어난 군중이 중문에서 흩어진 시각은 같은 날 오전 11 시경이었다.

20년 뒤인 1938년 8월 13일자 『매일신보』에 와서는 ‘약 300명’으로 표현되었다.

원래 제주도는 미신사파의 신도가 많은 곳으로 대정 2년경부터 강증산을 교조로 한 보천교 미륵교 동학교 대세교와 최제우를 교조로 하는 동학계의 수운교 등이 들어와서 대정 8년에 김연일이란 자가 그 사교도를 규합하여 가지고 자칭 불무○○라 하는 제주도 대정면 산방산에서 ○○식을 거행한 후 약 3백 명의 민중을 선동하여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 불을 질러 태워버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사교도는 여전히 불온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으로 명랑성이 없고 음험한 공기가 떠도는 것은 반드시 민중의 배후에 어떠한 사교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¹³⁾

1938년에 이르면 일제는 법정사에 대한 언급을 없앤 채 종교인들의 항일활동은 모두 제주도가 미신사파가 성행하는 곳이어서 배후에 사교가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눈에 띄게 왜곡되어 있음이 한 눈에 드러난다. 여기에도 법정사 항일운동을 대정 8년이라고 했으나 대정 7년에 일어났으며, 장소를 산방산이라고 표현한 자료는 이 기사가 유일하며 법정약이 맞는 장소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기사들은 점점 부정확한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 1차 자료라 할 수 있는 것은 『정구용 판결문』 뿐이다. 나머지 『매일신보』 기사 3편과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2년 뒤에서부터 20년 뒤에 편집한 2차 자료에 해당된다. 앞서 지적한 오류들은 바로 2차 자료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이며 의도적 왜곡이라고 하겠다.

13) 「한라산을 근거지로 총후에 암약한 사교」 『매일신보』(1938. 8. 13.).

이상 시대별 자료에 따라 달라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수의 변화를 간략히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 표1.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수 >

자료명	자료 연도	참여자 수
매일신보	1920년 4월 12일	700명
매일신보	1923년 2월 20일	400명
정구용 판결문	1923년 6월 29일	300~400명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	1934년 ★ ¹⁴⁾	약 400명
매일신보	1938년 8월 13일	약 300명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숫자가 1920년 기록에서는 700명이었다가 점차 400명으로 축소되고 20년이 지난 1938년에는 300명으로 묘사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바로 이렇게 법정사 항일운동의 의미를 왜곡하였다.

2. 거사 목적의 왜곡

다음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거사 목적에 대한 시기에 따른 기록 변화를 살펴겠다. 앞의 참여자 수에서 살펴본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1920년 『매일신보』에는 사건 개요는 설명하지 않은 채 ‘불무항제 김연일’의 체포 소식만을 전하고 있다. 1923년 『매일신보』에는 “승려 여러 명과 부근의 주민 수십 명이 단결한 후에 일본인 관리를 체포한 후 독립

14) 이 자료는 출판된 도서이기 때문에 월, 일을 표기하지 않았다.

을 계획할 터인데”라고 하였다. 그리고 1923년 『정구용 판결문』에서는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온 법정사 주지 김연일이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를 도외로 쫓아냄으로서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여주고자 법정사에 모여든 신도들에게 가담을 강요하였다.”라고 하였다. 1928년의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강창규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한일병합의 이치를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법정사 주지 김연일이 근래에 선도교 교지를 믿었는데, 경찰의 선도교에 대한 단속에 불만을 품고 내지 관리를 도외로 쫓아내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1934년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는 “언제나 교도에 대하여 반일사상을 고취시켰으며 국권회복을 위해 일본인을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선도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중해서 일을 꾸뻘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938년에 가서는 그 특성이 다르게 표현된다. 1938년 8월 13일 『매일신보』는 무극대도교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연일을 인용하여 제주도의 종교상황을 뭉뚱그려 묘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원래 미신사과가 많은 곳인데, 1919년에 김연일이 사교도를 규합하여 제주도 대정면 산방산에서 불무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300명의 민중을 선동하였다”고 하였다.

‘승려들’이 ‘불교도’를 규합하여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1938년에 이르러는 사교도들의 민중 선동으로 규정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일제는 수많은 종교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일환으로 1936년 유사종교해체령을 내려 종교 활동을 관리 통제하기에 이른다. 일제는 그동안 사기나 강간 등의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써오기도 하였다. 1938년 『매일신보』 기사는 이 해체령의 실천 기간 중에 나온 것

으로 무극대도교의 항일활동 의미를 축소함은 물론 법정사 항일운동의 의미도 폄하하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부터 멀어질수록 700명에서 300명의 참여로, 독립운동을 위한 목적이 사교도의 민중 선동 사건으로 바뀌어 점차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석시키려 하는 일제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왜곡된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은 이후 보천교의 난으로 폄하된 채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⁵⁾

IV.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일제 당국의 의도적인 왜곡은 법정사 항일운동을 보천교의 난이라는 시각을 굳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거사 날짜나 박주석 등 주도 세력의 성격은 물론 법정사 항일운동의 목적 등의 기본적인 시각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15) 보천교의 난으로 명명된 것은 김태능이 '태을교의 난'으로 다룬 이후인 것으로 조사된다. 앞서 살핀 1938년 『매일신보』와 동시대에 김석익은 『탐라기년』 정축(丁丑:1937년)조에서 '김연일의 변(金延日之變)'이라고 표현하면서 보천교와 연관된 것으로 묘사하였고, 김태능은 이 시각을 이어 태을교의 난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제주도지』 등 제주도 역사 관련 문헌들에 보천교의 난으로 표현되다가 근래의 연구자들은 보천교가 1921년에 정해진 교명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선도교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김태능, 「태을교의 난」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攷)』(세기문화사, 1982), 68~69쪽, 김태능 저·양성중 역,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동경, 신간사, 1988), 119~120쪽. 김석익, 「탐라기년」 『삼재집』(II)(제주향교 행 문화회, 1990), 183~184쪽.)

『형사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와 『수형인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여기에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목포형무소)의 발굴과 유족들의 구술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존 시각의 몇 가지 오해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1. 거사 날짜에 대한 오해

법정사 항일운동은 계획적인 사전 준비 끝에 1918년 10월 7일 거행되었다. 10월 5일과 6일 법정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루 종일 예불하는 날이어서 이날 모인 사람들과 7일 새벽에 출정식을 갖고 법정사를 내려가 도순리로 향하였다.

『정구용 판결문』과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 모두 10월 7일 새벽에 거사를 시작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어 이들 자료의 발굴로 거사일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되었다.

3일(필자 주: 음력 9월 3일로 양력은 10월 7일) 새벽에 34명이 산을 내려가 우선 먼저 도순리 윗 쪽의 상동으로 가.¹⁶⁾

동년 10월 5일부터 이튿날인 6일에 걸쳐 불교신자 등이 우 법정사의 집회에 모여 온종일 예불을 드리는 정례일임을 이용하여, ... 이튿날 7일 미명에 피고 김연일 강민수 김인수 김용충은 동사에 머무르고.¹⁷⁾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 거사일은 2002년 『정구용 판결문』 발굴 이전

16) 『정구용 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17)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까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의 기록을 풀이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논란이었다.

대정 7년 9월 19일 구 우란분(舊 孟蘭盆) 때 법정사에 모이게 한 교도 30명에 대해.¹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 나오는 대정 7년 9월 19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인데, 당시로서는 이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의 9월 19일은 양력 날짜이다. 그러나 이 9월 19일을 음력으로 보면, 우연히도 음력 9월 19일은 선도교의 창립일이었다. 이 점을 들어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 날을 기념하여 거사를 일으킨 것으로 연구되었던 적이 있다.¹⁹⁾ 이에 따라 법정사 항일운동이 더욱 더 보천교의 난이라는 시각의 연장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양력을 채용하여 쓰고 있었으며 음력으로 표기할 경우는 음력 날짜임을 따로 명기하였다. 우란분제는 조상의 혼을 위로하는 불교 행사일이며 기록상의 1918년 9월 19일은 우란분제를 위해 법정사에 모인 신도들에게 거사의 뜻을 표명한 날이다.

거사일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정구용 판결문』의 발굴로 법정사 항일운동 거사일은 양력 10월 7일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정구용 판결문』은 음력 9월 3일로 명기해 놓고 있다. 음력 9월 3일은 양력 10월 7일

18) 경상북도 경찰부 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일제 경찰 극비본) 영인판, 1934].

19)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2쪽.

이웃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는 양력 10월 7일로 기록해 놓고 있어 거사일에 대한 오해는 종식된 상태이다.

2. 박주석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박주석은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에 선도교 수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법정사 항일운동이 보천교의 난이라는 시각을 굳히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발굴된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기록 자료들인 1920년대 초반 『매일신보』 기사와 1923년의 『정구용 판결문』, 1928년의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 등 중 어느 자료에도 두 번 다시 박주석과 선도교를 연결한 기록이 없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유족들의 구술을 통해 박주석이 경상도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는 1934년 경상북도 경찰부가 극비본으로 펴낸 것으로 그간의 경상북도와 관계된 주요 범죄와 범죄자만을 추려서 편집해낸 2차 자료이다. 2002년 『정구용 판결문』 발굴 이전까지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체적 개요를 기록한 자료로서 비교대상이 없는 유일한 자료였기 때문에 그간의 연구에서 전폭적으로 신뢰받아 인용되어 왔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의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을 걷어가는 내지인을 포박 구타 상해를 입히는 등 2일간에 걸쳐 리민 약400명을 억지로 불러들여 폭동을 일으켰다. 원인은 선도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중하기 때문에 김연일은 사전에 친교가 있는 동지(同地) 선도교

수령 박명수(朴明洙)와 미리 짜고 일을 꾸미기에 이르렀다.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는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자료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934년의 자료이다. 앞 시기의 어느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던 사항이 여기에만 기록되고 있다. 박주석이 수령의 지위로 참여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면 이전 시기의 자료들에도 언급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위 인용문을 보면 ‘2일간에 걸쳐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는 등으로 거사에 대한 사실이 부정확한 면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2일간에 걸친 폭동이 아니었다. 법정사 출발 이후에 벌어진 참여자들의 구타 방화 등의 일은 모두 하루 동안의 일이었고, 같은 날 11시경에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에서 출동한 순사들에 의해 천제연 부근에서 흩어졌다.²⁰⁾ 이는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라는 책이 일제의 고등경찰이 경상북도 사람 중에 요시찰 인물을 정리하면서 다른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 놓은 2차 자료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왜 수령으로 적어두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주도세력 중에서 현장에서 체포되어 바로 형 집행된 사람 중에 박주석이 가장 높은 지위를 담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박주석을 수령급으로 표현한 것일 것으로 생각된다. 법정사 항일운동 조직도²¹⁾에서 주도세력들의 체포시기를 살펴보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총지휘는 김연일이었으나 1년 6개월여 은신 끝에 체포되었다. 거사 현장의 행동대장이었던 선봉대장 강창규는 4년 3개월여 은신 후에 체포되었고, 좌대장 방동화는 한달 여 은신

20)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21)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대각사상』제9집, (대각사상연구원, 2006), 317쪽에 법정사 항일운동 조직도를 구체화시켰다.

후 체포, 우대장 강민수는 4년 3개월 은신, 그리고 격문을 작성했던 정구용은 4년 4개월 후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박주석은 법정사 항일운동 조직도에서 모사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박주석 외에 주요 행동을 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된 가장 높은 지위였다는 박주석의 정황으로 말미암아 박주석이 수령급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다음의 표는 거사의 조직도에서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의 체포시기이다.

< 표2. 주도세력의 체포시기 >

구분 성명	체포 시기	은신 기간	체포 장소	역할
김연일	1920년 3월	1년 6개월	제주도	총 지휘
강창규	1922년 12월 27일	4년 3개월	제주도 우면 상호리	선봉대장
방동화	1918년 11월 12일경	1개월여	제주도	좌대장
강민수	1923년 1월 4일 형 집행 확정	4년 3개월	?	우대장
정구용	1923년 2월 13일	4년 4개월	경북 영일군 대동배동 자택	격문 작성
박주석	1918년 10월 7일	해당 없음	거사 현장	모사

필자는 박주석을 선도교 수령으로 보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박주석이 선도교 수령의 지위였다면 박주석 중심의 선도교도들의 조직적 참여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 중에는 1922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당시 제주도의 보천교도가 2만여 명이었으므로 1918년에는 선도교가 제주도 전 지역에 상당히 퍼져 있었을 것이고 따라

서 김연일과 박명수의 만남은 불교도와 선도교도의 집단적인 연결로 이해하여야 한다”²²⁾고 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형사사건부』 66명의 주소지를 분석해 보면 좌면 참여자가 56명으로 85%를 차지한다. 그 외 지역은 중면의 3명, 우면 2명, 구우면 2명, 제주면 2명, 경상북도 영일군 1명이다.

< 표3. 『형사사건부』 상의 주소지별 백분율 >

참여자의 출신지역	참여자 수	백분율	비고
좌면	56명	85%	김연일 등 법정사 승려 5명은 『형사사건부』에는 법정사를 주소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한 백분율이다.
중면	3명	4%	덕수리(김명돈), 사계리(강창규와 강수오)
우면	2명	3%	서흥리(최태유), 법환리(최문수)
구우면	2명	3%	금악리(박주석, 강봉환)
제주면	2명	3%	오등리(강익), 오라리(강춘근)
경상북도	1명	2%	김인수
계	66명	100%	

경상북도 영일군은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의 조카였던 김인수이고, 서귀 지역은 법환리 1명(최문수)과 서흥리 1명(최태유)을 말하며, 안덕 지역은 덕수리 1명(김명돈)과 사계리 2명(강창규와 강수오), 한림 지역은 금악리 2명(박주석과 강봉환), 그리고 제주면은 오등리 1명(강익)과 오라리 1명(강춘근)이다. 이 중 강창규는 법정사의 승려였고 강수오는 그의 동생

22)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통권99호(제주도, 1996. 1.), 85쪽.

이다. 최태유도 승려로서 범정사에 참여하였다. 좌면 지역 사람이 아닌 10명 가운데 승려였던 김인수와 강창규와 최태유 그리고 강창규의 동생 강수오를 제외하면 66명 중 6명만이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다른 지역 참여자이다. 그러나 이 6명도 중문 인근 지역인 덕수리 1명, 법환리 1명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먼 거리 참여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우면 금악리 2명과 제주면 2명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로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선도교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며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다는 선도교단의 조직적 참여 또한 증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연구는 박주석이 선도교 수령이라고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박주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박주석은 『수형인명부』에 진도군 동면 상리를 출생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주소이다.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주소 중 거짓 주소로 조사된 사람은 박주석 · 장임호 · 최태유이다. 필자는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주소를 각 해당 군청에서 1895년 이후의 지명, 혹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령’에 의한 일제시대의 지명 그리고 오늘날의 지명에 이르기까지에서 유사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박주석의 출생지는 마을 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주소였다.

박주석은 경상북도 안동 사람이다. 외손 이태수는 어머니와 금악리 동네 노인들로부터 박주석의 출신 및 이력을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외할아버지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열네 살에 진주로 양자를 갔다. 그런데 양자 든 집에서 재산 때문에 양어머니와 양누나가 학대를 했다. 견디다 못해 밤에 집을 나섰다. 수 십리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나 금강산으로 들어갔

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법명이 명(明) 자 수(洙) 자이다. 할아버지는 양자간 집에서 밤에 나올 때 족보만 메고서 나왔다고 하더라. 이건 금악 동네 노인들에게 들었다. 동네에서도 하도 수상하니까, 보자 하니 배운 것도 유식하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육지에 고향을 두고서 오셨냐고 자꾸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 외할머니는 한림읍 명월리 출신이다.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왔을 때는 40세가 다 되어서였고, 이때에야 할머니와 결혼하고 금악에 살았다.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남의 집에서 살았다.²³⁾

박주석은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와 『민적부』에는 구우면 금악리 고운주 집의 동거인으로 나와 있다. 유족 이태수는 박주석은 안동에서의 의병 활동 전력 때문에 제주도로 도피해 왔으며, 거짓 주소를 말한 연유도 이러한 전력을 숨기기 위한 것이고, 의병활동 행적과 연관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옥사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할아버지의 이명 명수는 법명이다. 어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면서, 삼수 삼봉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명수하고 태수가 삼수 중 둘이다. 어머니는 문태수 청년이 할아버지 제자라고 했다. 문태수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며칠간 밥도 안 드시고 눈물 흘리면서 누워계셨다고 한다. 내가 찾아보니까 문태수 청년은 호남의병대장 문태수이다. 문태수는 1904년에 금강산 박처사에게 병서를 받았다. 문태수는 원래 이름이 태서이다. 의병활동을 하면서 태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박처사는 『공훈록』에 안동에서 의병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다. 할아버지의 이명 박

23) 박주석의 외손 이태수의 구술 (경기도 시흥시, 68세, 2005. 4. 15. 필자 채록). 제주도에서 1993년에 경기도로 이주.

처사가 바로 문태수 장군에게 병서를 건네준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한 이분이라고 생각한다.²⁴⁾

이태수는 『독립유공자 공훈록』의 안동 사람 ‘박처사’²⁵⁾가 『수형인명부』의 박주석의 이명으로 기록된 ‘박처사’와 일치하고 있고 어머니에게서 전해들은 문태수 장군과의 연관성 등으로 안동의 박처사가 박주석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문태수는 호남의병단의 의병대장으로 금강산에서 박처사에게 병서를 받아 의병활동을 한 인물이다.²⁶⁾ 박주석은 박명수 또는 박처사라는 이명을 남기고 있는데 유족 이태수는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한 박처사가 박주석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고 옥사한 이유도 그 행적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주석은 김연일의 권유로 법정사 항일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다.²⁷⁾ 이후 법정사에서 한 달 정도를 김연일과 함께 머무르며 거사를 준비하였다. 박주석은 진도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안동 사람이며 이전에 김연일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동참을 권유받은 후 함께 거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상북도 사람들인 김연일 박주석 등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전부터 육지부에서 항일운동 이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

24) 박주석의 외손 이태수의 구술 (경기도 시흥시, 68세, 2005. 4. 15. 필자 채록).

25) “박처사 : 1908년 국권회복을 위해 경북 안동에서 의병 300명을 인솔하여 활동한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제9권 : ‘90·’91 건국훈장서훈자(독립유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1991), 635쪽.

26) 문태서는 태수(泰洙)라고도 하며, 1904년 2월 안의군 서상면 이제두의 소개로 금강산에 은거하고 있는 박처사를 찾아갔다. 박처사는 자신을 찾아온 그에게 유격 전술과 총포 사격술을 가르쳤고 그는 약 2년 동안 열심히 수련하였다. 전북향토문화연구회, 「문태서 의병대 : 호남의병단」 『전북의병사』하(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2), 375~376쪽.

27)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다.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성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왜곡에서 출발한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는 주도세력의 종교 성향에 대해서도 논란을 가져왔다. 필자는 주도세력들이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에도 승려였고 이후에도 승려로 종교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승적첩』과 『이력서』 그리고 유족들의 구술 증언 자료 등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당시 승려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일반 참여자 중에도 후에 승려로 사찰을 창건하여 불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²⁸⁾

법정사에 거주했던 승려들은 출옥 이후에도 승려 생활을 이어나간다. 기림사 승려였던 김연일은 출옥 이후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입암리에 관음사를 창건하였다.²⁹⁾ 입암리 관음사는 일제 경찰에 의해 불태워졌으나 김연일의 사후 그의 부인 강성돈은 계속 사찰을 운영하여 강창규·방동화를 비롯한 법정사 관련 인물은 물론 경상도 지역의 독립운동 인사

28) 안후상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 중 김연일과 정구용·강민수 만이 불교도이며 이들 외에 승려라고 표기된 그 어떤 자료도 없다. 다만 당시 관련자의 후손 몇몇이 선대들이 승려였다고 증언하였다”고 하였다.(안후상의 앞 논문(1995), 44쪽, 안후상의 앞 논문(1996), 168쪽). 이는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만을 자료로 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다. 본 연구자는 『이력서』 『교적부』 『승적첩』 등의 자료를 통해 이들 외에도 강창규·방동화 등 승려들이 여러 명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이 외에도 언제부터 승려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후에 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하였던 최태유·오인석 등 다수가 있다.

29) 지역 주민들에게는 ‘선바우꼴 절’이라고 기억되고 있다. 홍해읍 마산리 주민 이춘우의 구술 (경상북도 포항시 홍해읍 마산리, 67세, 2004. 10. 23. 필자 채록).

들의 모임처 역할을 지속하였다. 1892년 죽림사로 출가하였던 강창규는 출옥 후 죽림사에서 생활하다가 제주도에 돌아와 1943년 남제주군 대정면 동일리에 서산사를 창건하였으나 총독부에 설립 신고는 하지 않았다. 1951년에야 대한불교제주교무원에서 제주불교 활동에 참여하였다. 1913년 기림사로 출가한 방동화는 출옥 이후 범어사에 들어가 살았고, 1932년경에 제주도에 내려왔다. 중문면 하원리 법화사와 중문면 하원리 기림사 포교소 원만사에서 활동하였다. 방동화는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제주불교의 흐름 속에서 활동하였다. 김인수는 감옥에서 폐결핵에 걸려 출옥한 이후 절에서 생활하며 불상도 만들고 탕화도 그렸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의 화룡사, 포항시 동해면 중산리의 일출암 그리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의 무학사를 창건하였다. 1935년 정구용의 질녀와 결혼하고 1939년 41세에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사망하였다. 정구용은 경상북도로 돌아가 보경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일주문 앞에 세워져 있는 '기미 3·1 독립의거 기념비'에서 정구용의 경상북도 지역 활동을 알 수 있다. 최태유는 후에 최진수로 개명하여 활동하였다. 1937년 위봉사 제주도 성산포 포교당을 창건하였다.³⁰⁾ 1945년 12월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에 신흥사 대표로 이름이 올라있다. 남제주군 고성리 남안사도 창건하였다. 이들은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항일 운동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승려로 활동하다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인연을 갖고 있어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주도세력 간의 인적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상북도 사람인 김연일이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는 것은 강창규와 방

30) 「성산포교당 불봉식」 『불교시보』제25호(1937. 8. 1.),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118쪽, 제수록.

동화와의 인연 때문이다. 이들은 기림사 승려들로 박만하라는 스승을 매개로 하고 있기도 하다. 도순리 법정사를 주소지로 기록하고 있는 강민수·정구용·김인수·김용충·장임호와 김연일의 조카 김인수는 모두 김연일과의 인연으로 제주도에 내려온 승려들이다. 최태유는 강창규와 위봉사의 인연으로 참여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사 관련 주요 인물간의 관계를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³¹⁾

< 표4. 법정사 관련 주요 인물간 관계 >

이름	관 련 사 항
박만하	위봉사 제자 : 강창규 · 김석운
	기림사 제자 : 방동화
	1914년 관음사 활동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됨 : 창건주 안봉려관, 초대주지 안도윌과 함께 봉안
강창규	1892년 출가
	박만하의 제자
	1913년경 관음사 활동
	방동화 출가 알선 : 기림사, 박만하의 제자로
김석운	1894년 출가
	박만하의 제자
	1908년 관음사 창건에 기여, 1911년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
	1909년 제주의병항쟁 의병장
	1911년 법정사 창건에 기여

31) 주도세력의 인물간 관계에 대해서는 한금순의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대각사상』제9집, 대각사상연구원, 2006)에 자세하게 연구되어 있다.

방동화	1911년 법정사 창건에 기여
	1913년 관음사 활동 중 강창규의 도움으로 기림사에서 출가
	박만하의 제자
	1914년 김연일과 동행하여 제주도로 복귀
관음사	창건 : 1908년 안봉려관
	창건 도움 : 김석윤 · 방동화
	1908년 이후 김석윤 활동
	1913년 강창규 · 방동화 활동
	1914년 박만하 활동
	1914년 기림사 승려 김연일 관음사 이주
기림사	1913년 방동화 출가
	박만하 활동
	출신 승려 : 김연일 · 강민수 · 정구용 · 김인수 · 김용충 · 장임호
법정사	창건 : 1911년 안봉려관
	창건 도움 : 김석윤 · 방동화
	김석윤이 제주의병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감시대상이 됨 → 주도세력들의 법정사 이주
	1914년 법정사 주지 : 김연일

박만하는 강창규·김석윤·방동화를 제자로 두고 있다. 강창규·김석윤·방동화 세 사람은 같은 스승을 찾아가 출가할 정도로 서로 밀접한 관계였으며 출가 이후 항일활동에 참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만하는 관음사 활동의 업적으로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된 인물이다. 이는 박만하의 제자들이 관음사 활동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할 뿐 아니라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주도세력으로 활동하게 되는 역량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석윤은 출가 이후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

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일제의 감시대상이 되면서 관음사의 항일의식을 가진 인물들이 법정사로 옮겨가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자신도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 더 이상 법정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동화는 관음사에서 강창규 등의 영향을 받아 기림사로 출가하였고 기림사 승려였던 김연일은 강민수·정구용·김인수·김용충·장임호 등을 데리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들의 인물간 관계는 박만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경주 기림사와 제주도 관음사, 그리고 김석윤과 강창규 등과의 연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이었던 승려들의 인물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도세력의 어떠한 특징이 보천교의 난이라는 시각을 오래도록 지속시키게 하였을까하는 관점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제시대 제주불교의 특징은 오늘날의 불교 특징과 비교하여 불 때 민간신앙의 측면과 흡사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근대에 들어 제주불교가 틀을 갖추고 나서 사찰의 확장과 아울러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 바로 민간신앙의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제주불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도세력의 종교 성향은, 김연일이 불무황제를 칭하였다든지 하는 등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유행하였던 신흥종교의 특성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이들 법정사 승려들이 선도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도교 등의 신흥 민족종교들 또한 불교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³²⁾ 선도교는 미륵불

32) 증산교의 강일순은 금산사에서 미륵불로 강생하였고, 김형렬의 미륵불교는 미륵불을 신앙하는 등으로 다수의 신흥종교들은 불교적 특징을 가미

의 강생을 주장한다든지 금산사에서 활동을 개시한다든지 하는 점에서 보면 불교의 또 다른 한 계파인 듯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18년 제주 불교계는 당시 흐름의 특징대로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흐름의 특징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도세력들이 신흥종교의 어느 특정 교파를 따라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륵불의 불교적 요소를 강하게 지닌 선도교에 경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들 법정사 승려들은 출옥 이후에도 대부분 불교 승려로서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그들 자신들은 불교 승려로서 활동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기록들도 법정사에 모인 이들을 불교도로 칭하는 점 등을 주시해보면 당시 법정사가 불교 사찰이었다고 인식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게다가 앞서 운동의 목적에서 살펴듯이 국권회복과 아울러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천명하였던 점에서 보면 이들이 설사 신흥종교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지금에 와서 판단된다고 하여도 당시로서는 자신들은 불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구용판결문』에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도당을 만들고' '음력 2월경부터 불교도가 되었는데, 김연일은 ... 조선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불교를 포교하고 싶은바' 등으로 불교의 포교를 내세우고 있다.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조선전토에 불교를 퍼트리고'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당시로서는 법정사를 불교 사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도 불교의 포교를 내세우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일제의 왜곡에 의한 인식에 근거하여 법정사 항일운동을 종교적 갈등

하고 있다.

이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또 있었다. 고이즈미키요미(小泉清身)·윤식명·원용혁에 대한 구타가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의 표시였다고 본 기존 연구가 있다. 『제주도지(濟州道誌)』에는 “이들은 항상 일제에 저항하고 개화사상에 도전하며 더구나 기독교 신앙인에 대한 증오심은 대단하였다”³³⁾고 하였는데, 이는 『제주 선교 70년사』³⁴⁾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선교 70년사』는 법정사 항일운동을 ‘일본인과 개화인을 배척한 폭동’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중문 주재소 경찰관과 면직원들이 윤식명과 원용혁을 서귀포 오가와(小川)의원으로 입원시켜 한 달간 치료 받게 하였다”고 하고 있다. 개화인은 일본색을 띠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윤식명 목사 일행은 경찰관과 면직원들이 치료를 도와 줄 정도로 일본인과 가까웠던 사이임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구용 판결문』의 해당구절에 의하면 “도로에서 3인의 내지인이 오자, 100여 명의 선봉자가 몽둥이 또는 돌로 때렸다”고 표현하였으며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에는 “하원리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던 고이즈미키요미(小泉清身) 등을 구타, 결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일제시대 자료에는 고이즈미키요미(小泉清身) 일행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타하였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창규의 지시를 따른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은 고이즈미키요미(小泉清身)와 함께 오는 이들을 모두 일본인이라고 보았거나 아니면 『제주 선교 70년사』의 표현처럼 일본색을 띠고 있었거나 일본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조선인 윤식명 일행에 대한 반감의 표현으로 이들을 구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33) 제주도, 『제주도지(濟州道誌)』(제1권)(제주도, 1993), 1134~1135쪽.

34) 강문호·문대선 공저, 『제주 선교 70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8), 42~43쪽.

이외에도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서 오해되었던 점으로, 김연일이 '천제연으로 도주하다 체포되었다'³⁵⁾거나, 강창규와 방동화가 머리를 기르고 한복을 입었다는 사실 등으로 승려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하려 한 기존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김연일은 거사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사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거사 당일 법정사에 머무르고 있었다.³⁶⁾ 도피 후 1920년 3월 중에 검거되었다. 게다가 일제시대 승려들은 유발(有髮)에 처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한복을 입고 생활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는 모두 '보천교의 난'이라고 하였던 기존의 시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들이라 할 수 있다.

V. 맺는 말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내세워 1918년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의 지휘 아래 지역 주민 700여명이 함께 일으킨 항일독립운동이다. 이 글은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새롭게 증명된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었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35)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 봉기 연구」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해방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중문청년회의소, 1995. 8. 15.), 42~43쪽,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항일 항쟁 연구」 『종교학연구』15집(서울대학교종교학회, 1996), 166~167쪽.

36) "7일 미명에 피고 김연일·강민수·김인수·김용충은 동사(同寺)에 머무르고"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법정사 항일운동은 국권회복을 기치로 내건 독립운동이었다. 일제가 항일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하여 흑세무민하는 보천교의 난으로 왜곡한 것이었다. 이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시각은 보천교의 난으로 고정되어,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를 모두 이러한 시각과 연관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날짜와 주도 세력에 대한 오해 등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에 일어났으며, 700여명의 주민이 동참하였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사건부』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은 85%가 법정사 인근 마을인 좌면 출신 주민들이었다. 700여명의 참여자들은 당연히 대부분이 좌면 주민들이었음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주도세력들은 법정사에 모이기 이전에 이미 승려로 출가한 사람들이 주가 되었으며, 이들이 법정사에 모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법정사에 모인 신도들에게 거사의 뜻을 알리고 주변에 동참을 권유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참여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참여한 거사가 일본인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700여 주민들이 참여한 항일운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제어 】

김연일, 박주석, 강창규, 보천교의 난, 선도교, 국권회복, 700여명 좌면 주민의 참여, 의병활동, 거짓 주소, 주도세력의 인물간 관계

【 Abstract 】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Jeju Beobjungsa Anti-Japanese Movement in 1918**

Han, Geum-soon

(the doctor's course of the history department, Jeju University)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Jeju Beobjungsa broke out at Dosoongri in Jeju on December 7 in 1918. The Anti-Japanese movement was staged by some Buddhist monks such as Kim Yeon-il, Kang Chang-gyu and Bang Dong-hwa and about 700 local folks to the purpose of recovering national sovereignt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n the Jeju Beobjungsa movement by tracing not only its preparation an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for the movement but also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leading power all throughout the movement.

Japan, however, tried to diminish and distort the meaning of the resistance movement into "a rabble-rousing instigated by around 300 to 400 pretended devotees." Seeing the fact that Beobjungsa Buddhist monks induced about 700 local folks' participatio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a careful prearranged plan, we can easily perceive the Japanese intention to diminish the meaning of this

Anti-Japanese movement.

The newly discovered documentary records made this study possible. This study is also based on preserved documents in National Registration Agency, words of mouth from the bereaved families, and materials in their possession.

【 Keywords 】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Jeju Beobjung Temple

700 local folks' participation

Kim Yeon-il

Kang Chang-gyu

Bang Dong-hwa

Park Ju-seok

Jungmun Police checkpoint

The crime of uproar and violation of security law

The emperor Bulmu

The uproar of Bocheongyo

【 참고문헌 】

1. 자료

1) 문헌 자료

- 경상북도 경찰부 편,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일제 경찰 극비
본) 영인판, 1934]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제9권 : '90·'91 건국훈장서훈자(독립유
공자공훈록편찬위원회, 1991)
-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정동원, 1991)
- 김석익, 「탐라기년」, 『심재집』(II)(제주향교 행문회, 1990)
-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12. 12. 목포형무소, 국가기록원 소장)
- 『교도책임자명부(이력서철)』(1951, 대한불교 제주교도회 제주교무원, 한국
불교 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 『교적부』(1947, 관음사 포교소,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 『방동화 승적첩』(1940, 방진주 소장)
- 『수형인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국가기록원 소장)
- 『정구용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소장)
- 『형사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국가기록원 소장)

2) 구술 자료 (채록자: 한금순)

- 김인수의 조카 김인구의 구술 (경상남도 포항시, 59세, 2004. 10. 23. 필자
채록)
- 박주석의 외손 이태수의 구술 (경기도 시흥시, 68세, 2005. 4. 15. 필자 채

록)

홍해읍 마산리 주민 이춘우의 구술 (경상북도 포항시 홍해읍 마산리, 67세, 2004. 10. 23. 필자 채록).

3) 신문자료

- 「불무황제 체포」 『매일신보』(1920. 4. 12.).
「자칭 황제 강창규」 『매일신보』(1923. 2. 20.)
「한라산을 근거지로 총후에 암약한 사교」 『매일신보』(1938. 8. 13.)

2. 연구 논저

1) 저서

- 강문호·문태선 공저, 『제주 선교 70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8)
김태능 저·양성종 역,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동경, 신간사, 1988)
김태능,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攷)』(세기문화사, 1982)
전북향토문화연구회, 「문태서 의병대 : 호남의병단」 『전북의병사』하(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2)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2) 논문

-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통권99호(제주도, 1996. 1.)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 봉기 연구」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해방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중문청년회의소, 1995. 8. 15.)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항일 항쟁 연구」 『종교학연구』15집(서울대학

교종교학회, 1996)

정금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사)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2004. 2. 28.), 10~12쪽.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사단법인 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서귀포시, 2002. 11.), 22쪽.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대각사상』제9집, 대각사상연구원, 2006.

3) 기타 자료

제주도, 『제주도지(濟州道誌)』(제1권)(제주도, 1993)

『불교시보』제25호(1937. 8. 1.)

『제주도지』제39집(1969. 7.)

『제주도지』제42집(1969. 1.)

『제주도지』제54집(1972. 5.)

